



우림과 듄뭍, 예뵛, 그뤼고 언약궜 - 제사장의 궛술 도구들

강승일 | 한남대학교

인간은 한 치 앞을 내다보지 못하는 언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고금을 막론하고 대부분의 문화권에서 신의 뜻을 물어서 미래를 예측하는 다양한 방식의 궛술들이 이루어졌다. 본 논문의 연구범위에 포함되지는 않지만, 고대 이스라엘에서도 죽은 자의 영혼과 접촉하는 궛술(necromancy), 화살을 쏘아서 신의 뜻을 찾는 궛술(bellomancy), 물에 기름을 띄워 그 모양을 보는 궛술(lectanomancy) 등 각종 궛술들이 행해졌다는 구체적인 증거들이 구약 성경 여러 곳에 남아 있다. 그러나 이러한 궛술들은 대부분 성경의 기록자들에 의하여 야훼 하나님에 혐오하시는 것들이라고 비난받았다.

그 반면, 사무엘상 28장 6절은 이스라엘의 야훼신앙에서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세 가지의 궛술 방식으로 꿈, 우림, 선지자를 언급하고 있다. 주지하다시피 선지자는 하나님의 뜻을 사람들에게 전하는 전문인이다. 그렇다면 꿈과 우림도 선지자에 상응하는 개념으로 보아, 각각 전문적으로 꿈을 풀이해주는 해몽가와 우림을 통해 궛술을 행하는 제사장을 가리키는 용어일 가능성이 있다.¹⁾ 여기에서 우림은 물론 우림과 듄뭍을 줄여 말한 것이다. 성경은 제사장이 하나님의 뜻을 묻

www.kci.go.kr

는 점술에 사용하는 주된 도구를 우림과 둠뭉으로 보고 있는 것이다. 지금까지 공인된 점술 도구로서 우림과 둠뭉의 형태와 기능 및 사용 방법 등에 대해서는 다양한 주장들이 있어왔고, 그만큼 상당히 많은 연구가 이루어졌다. 이미 19세기 말부터 우림과 둠뭉의 어원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되었고, 최근에는 기존의 내용들을 망라한 단행본까지 출판되기에 이르렀다.²⁾ 그런데 우림과 둠뭉의 점술적 기능에 연구가 집중되다 보니 제사장의 통제 아래 있는 다른 기물들도 점술에 이용되었을 가능성에 대한 문제는 상대적으로 간과되어 왔고, 단지 고대 이스라엘의 점술을 다루는 책들에서 간략하게 다루어지고 있을 뿐이다.³⁾ 지면이 한정된 관계로 서론에서 이 모든 연구사를 소개할 수는 없고, 본문에서 각 주제에 해당되는 논의를 할 때에 주요 이론들에 대한 연구사를 다루기로 한다.

본 논문은 성경의 증거 자료들을 심층적으로 분석하여 우림과 둠뭉뿐만 아니라, 에봇과 언약궤도 이스라엘 역사의 일정 기간동안 제사장의 점술 도구들로서의 기능을 가지고 있었음을 보여주고자 한다. 그리고 각 점술 도구들이 어떠한 상황에서, 어떠한 방식으로 사용되었는지, 그리고 구약 성경의 일부 자료층에서 에봇과 언약궤의 점술적 기능이 사라지게 된 배경과 신학적 이유가 무엇인지 분석해 보고자 한다.

1. 우림과 둠뭉

이스라엘의 대제사장이 입는 의복에 대하여 묘사하고 있는 출애굽기 28장 29-30절에 의하면, 대제사장은 에봇 위에 흉패를 입게 되는데, 이 흉패 안에 우림과 둠뭉을 넣어두어야 한다. 흉패는 “판결의 흉패”라고 불리는데, 금실, 청색,

1) Jean-Marie Husser, *Dreams and Dream Narratives in the Biblical World* (trans. Jill M. Munro; Sheffield: Sheffield Academic Press, 1999), 168.

2) 필자는 19세기 말부터 출판된 우림과 둠뭉에 대한 모든 글들을 한정된 본 논문의 지면에 다 소개하는 것은 큰 의미가 없다고 본다. 다만 우림과 둠뭉에 대한 기본적인 문헌들은 Cornelis Van Dam, *The Urim and Thummim: A Means of Revelation in Ancient Israel* (Winona Lake: Eisenbrauns, 1997), xiv-xvi에 수록된 주요 목록을 참조하면 되겠다.

3) Frederick H. Cryer, *Divination in Ancient Israel and Its Near Eastern Environment* (JSOTSup 142; Sheffield: JSOT Press, 1994), 272-283; Ann Jeffers, *Magic and Divination in Ancient Palestine and Syria* (Leiden: Brill, 1996), 197-229.

자색, 홍색 실, 베 실로 짜서 만든다. 정사각형 모양의 흉패에는 네 줄에 각각 세 개씩, 모두 열 두 개의 보석들이 매달려 있다. 흉패는 두 겹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아마도 사이에 주머니처럼 공간이 생겨서 여기에 우림과 둠뭇을 넣어둘 수 있었을 것이다. 그런데 대체 이 우림과 둠뭇이 무엇인지, 그 이름과 기능 등에 대하여 정확히 알 수 없는 부분이 많다.

우림과 둠뭇은 구약 성경에 여러 번 언급되는데(출 28:30; 레 8:8; 민 27:21; 신 33:8; 삼상 14:41; 28:6; 스 2:63; 느 7:65), 우림만 언급되는 두 번의 경우(민 27:21; 삼상 28:6)들을 제외하고는 주로 우림과 둠뭇, 또는 둠뭇과 우림 식으로 짝을 이루어 나타난다.

1) 어원

우림과 둠뭇이라는 말의 의미와 기원에 대해서 몇 가지 주장들이 제기되었다. 가장 널리 알려진 설명은 우림을 ‘빛’을 의미하는 히브리어 אור(오르/빛)에서 온 것으로 보고, 둠뭇을 ‘완전하다’를 의미하는 어근 תמם(타맘/완전하다)에서 온 것으로 이해한다. 우리말 개역개정 및 새번역 성경의 각주도 우림과 둠뭇의 의미를 ‘빛’과 ‘완전함’으로 설명하고 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자면, 둠뭇은 ‘완전함’을 의미하는 명사 תם(툼/완전함)의 복수형이다. 우림의 경우, 오르의 복수형은 오림이 되어야 그러나, 둠뭇의 모음 형태의 영향을 받아서 우림이 되었다고 볼 수 있다.⁴⁾ 여기에서 왜 복수형이 사용되었는지에 대한 의문이 생길 수 있는데, 이에 대한 가장 간단한 대답은 우림과 둠뭇이 각각 한 개, 또는 한 종류가 아니라 여러 개, 또는 여러 종류로 이루어졌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우림과 둠뭇의 뻤(ם)이 남성 복수형 어미가 아니라, 전접어 뻤, 또는 아카드어 등에서 발견되는 단어 끝에 추가된 뻤(mimamtion)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⁵⁾

한편 이 두 개의 단어의 의미를 각각 ‘빛’과 ‘완전함’으로 개별적으로 보지 않고, 한 개념을 두 단어로 이어 표현하는 방식(hendiadys)의 일종으로 보아서 ‘완전한 빛’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도 있다.⁶⁾ 그렇다면 여기에서 말하는 빛은

4) J. Döllner, *Die Wahrsagerei im Alten Testament* (Münster: Aschendorff, 1923), 23; Cornelis Van Dam, *The Urim and Thummim: A Means of Revelation in Ancient Israel* (Winona Lake: Eisenbrauns, 1997), 132.

5) Anne M. Kitz, "The Plural Form of 'Urim and Thummim'", *Journal of Biblical Literature* 116 (1997), 402.

6) I. Mendelsohn, "Urim and Thummim", *The Interpreter's Dictionary of the Bible* 4: 740.

우리말로 ‘(신의) 조명, 계시’ 등으로 보아 ‘완전한 조명’ 정도의 번역이 더 적합할 것이다. 우림과 둠뫼의 어근을 서부 셈족어가 아닌 아카드어나 아랍어, 또는 이집트어에서 찾고자 하는 시도들도 있어 왔다.⁷⁾ 그러나 이러한 주장들은 대부분 근거가 희박해서 많은 지지를 받지 못하고 있다.

우림과 둠뫼의 의미를 추정할 때 반드시 고려해야 할 사항이 바로 우림과 둠뫼의 기능이다. 이에 대하여는 바로 아래에서 더 논의하겠지만, 대부분의 학자들이 우림과 둠뫼를 점술에 사용되는 도구의 일종으로 보고 있다. 다시 말해, 신의 뜻을 묻고 그에 대한 답변을 우림과 둠뫼를 통해 듣는 것이다. 그리고 그 답변은 ‘예’와 ‘아니요’의 두 가지 상반된 형식으로 주어지게 된다. 그렇다면 우림과 둠뫼의 이름들은 서로 상반되는 의미를 가지고 있었을 가능성이 높다. 이를 근거로 우림과 둠뫼의 어원을 다시 생각해 보면, 우선 둠뫼는 ‘무죄의’라는 뜻으로 볼 수 있고, 우림은 히브리어로 ‘저주하다’를 의미하는 어근 אָרַם(아라르/저주하다)에서 온 것으로 보아 ‘저주 받은, 유죄의’의 의미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⁸⁾ 필자의 견해로는 바로 이 의미가 우림과 둠뫼의 기능을 가장 잘 반영하는 설명인 듯하다.

2) 형태와 기능

우림과 둠뫼는 어떻게 생겼으며, 그 기능은 무엇이며, 어떻게 사용되었을까? 고고학적으로 발견된 우림과 둠뫼의 모델도 없고, 성경 이외의 자료에도 우림과 둠뫼에 대한 기록이 남아 있지 않은 현 상황에서 그나마 이에 대한 답을 찾을 수 있는 곳은 구약 성경뿐이다.⁹⁾ 앞에서 본 출애굽기 28장 19-30절은 우림과 둠뫼를 대제사장의 흉패 안에 보관하라고 했으므로, 그것들의 크기가 그리 크지 않았음을 유추할 수 있다.

우림과 둠뫼가 나무로 만들어진 것인지, 아니면 돌로 만들어진 것인지, 아니면 금속인지, 아니면 일종의 막대기인지 성경은 이에 대하여 아무런 정보를 제공

7) 이에 대한 요약은 Cornelis Van Dam, *위글*, 95-97을 보라.

8) J. Wellhausen, *Die Composition des Hexateuchs* (3rd ed; Berlin: G. Reimer, 1899), 110ff.

9) Cornelis van Dam은 지금까지 우림과 둠뫼와 유사한 것이라고 제기된 대부분의 고대 근동의 예들을 조사하고 분석했으나, 이러한 주장들은 모두 근거 없는 것으로 결론 내렸다. 아직까지 이스라엘의 우림과 둠뫼이 고대 근동의 다른 문화에서 유래한 것이라고 볼 수 있는 증거는 없다. Cornelis Van Dam, *위글*, 39-82.

해주지 않는다. 또한 우림과 둠뫼이 서로 동일하게 생겼는지, 아니면 모양이 서로 달라서 구분될 수 있었는지도 정확히 알 수 없다. 만일 우림과 둠뫼의 모양이 서로 비슷했다면, 둘을 구분하기 위해 우림에는 우림의 첫 자음이자 히브리 문자 알파벳의 첫 자음인 알렙이, 그리고 둠뫼에는 둠뫼의 첫 자음이자 히브리 문자 알파벳의 마지막 자음인 타우가 기록되어 있었을 가능성도 있다.

우림과 둠뫼이 어떻게 사용되었는지를 가장 잘 보여주는 구절은 사무엘상 14장 41절이다. 이 구절은 개역개정판 성경에는 사울이 하나님께 “실상을 보이소서 하였더니 요나단과 사울이 뿔히고 백성은 면한지라”로 번역되어 있는데, 이는 마소라 본문을 있는 그대로 반영하고 있는 번역이다. 이 구절의 ‘실상’은 사실 둠뫼으로 번역해야 할 가능성이 높다. 사실 마소라 본문은 호모이오텔루톤(homoioteleuton)의 결과로 원문이 손상된 상태이다. 마소라 본문의 사무엘상 14장 41절에 있는 내용은 성경을 필사하던 서기관이 동일한 단어가 두 행의 끝부분에 나타날 때, 두 번째 행을 이미 필사한 것으로 착각하여 그 행을 빼먹고 다음 행으로 넘어가면서 해당되는 행이 통째로 사라지는 서기관의 실수의 결과가 남아 있는 것이다.¹⁰⁾ 따라서 대부분의 주석가들은 칠십인역을 따라 사라진 부분을 재구성하여 채워 넣고 있으며, 새번역 성경이 이를 반영하고 있다. 다음은 41절의 새번역 성경의 번역이다.

사울이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아뢰었다. “오늘 저에게 응답하지 않으시니, 웬일 이십니까?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 그 허물이 저에게나 저의 자식 요나단에게 있다면 우림이 나오게 하시고, 그 허물이 주님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있다면 둠뫼이 나오게 하십시오.” 그러자 요나단과 사울이 걸리고, 백성들의 혐의는 벗겨졌다.

이 구절에서 사울은 자신과 요나단에게 죄가 있는지, 아니면 백성들에게 죄가 있는지 판결을 내리기 위해 우림과 둠뫼을 사용한다. 우림과 둠뫼은 아마도 주사위와 같은 물건을 던져서 그 결과로 신의 뜻을 구별하는 점술(cleromancy)의 일종에 사용되는 도구였을 것이다. 질문을 던진 사울은 자신이 유죄일 경우 우림이

10) P. Kyle McCarter, *1 Samuel: A New Translation with Introduction and Commentary* (AB 8; Garden City: Doubleday, 1980), 247-248.

나올 것으로 예상했기 때문에, 우림의 의미는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빛’ 보다는 아마도 ‘저주받은, 유죄의’ 일 가능성이 훨씬 높다.

민수기 27장 21절도 이와 비슷한 우림과 둠뫼의 용도를 보여준다. 모세의 후계자로 지명된 여호수아가 만일 하나님의 뜻을 물어야 할 때가 있으면, 그는 제사장 엘르아살에게로 가서 이를 의뢰하고, 엘르아살이 우림의 판결로 하나님께 질문을 던질 수 있었다. 이 구절에 의하면 우림과 둠뫼를 던져서 점술을 행하는 권한은 왕이나 백성의 지도자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제사장에게 있었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우림과 둠뫼를 통한 점술이 항상 ‘예’ 또는 ‘아니요’의 결과만을 보여주는 것이 아님을 사무엘상 28장 6절이 알려준다. 이 구절에 의하면, 사울 왕은 블레셋 군대와의 전쟁을 앞두고 어떻게 해야 할지를 하나님께 묻고자 했다. 그런데 하나님은 사울에게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예언자로도 대답하여 주지 않으셨다. 여기에서 우림은 아마도 우림과 둠뫼를 간단히 줄여 말한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우림과 둠뫼를 통해 답을 얻고자 시도했음에도 불구하고, 답이 나오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를 통해 유추할 수 있는 우림과 둠뫼의 사용 방법은 다음과 같다. 아마도 우림과 둠뫼는 각각 ‘예’ 또는 ‘아니요’의 답을 줄 수 있도록 표시되었을 것이다. 만일 둘 다 ‘예’가 나오면, 질문에 대한 답은 ‘예’가 되고, 둘 다 ‘아니요’가 나오면, 질문에 대한 답은 ‘아니요’가 된다. 만일 둘 중 하나는 ‘예’가 나오고, 다른 하나는 ‘아니요’가 나오면, 우림과 둠뫼를 통한 점술로는 답을 얻지 못한 것으로 여겨졌던 것 같다.¹¹⁾ 이 경우, 다시 우림과 둠뫼를 던졌을 가능성도 있고, 다른 방식의 점술을 시도할 수도 있었을 것이다. 실제로 뒤에 이어지는 사무엘상 28장의 내용을 보면, 사울 왕은 우림과 둠뫼를 비롯한 방식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뜻을 아는데 실패하자, 무당을 통해서 죽은 사무엘과 접신을 시도한다.

점술이나 다양한 방식으로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는 것을 표현할 때 사용되는 히브리어는 동사 **נָאֵל**(사알/문다)과 전치사 **בְּ**(브/-에)를 붙여 사용한다. 물론 우림과 둠뫼를 사용하여 하나님의 뜻을 물을 때도 이 표현이 사용되었다. 그런데 이 표현을 사용하여 하나님의 뜻을 구했을 때, ‘예’ 또는 ‘아니요’ 뿐만 아니라,

11) Jacob Milgrom, *Numbers: The JPS Torah Commentary* (Philadelphia: The Jewish Publication Society, 1990), 485.

때로는 구체적인 답변이 주어진 경우들이 있다. 예를 들어, 사사기 20장 18절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께 “우리 중에 누가 먼저 베냐민 지파와 싸우러 올라가야 하겠습니까?”하고 물었을 때, 유다 지파가 먼저 올라가라는 답이 주어졌다. 이는 분명 ‘예’ 또는 ‘아니요’ 식의 답변이 아니다. 그 외에도 사사기 1장 1-2절, 사무엘상 10장 22절, 사무엘하 2장 1절; 5장 23-24절 등에서도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뜻과 지시가 내려졌다.

그러므로 일부 학자들은 우림과 둠뫼미가 단순히 두 개로만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히브리어 알파벳 스물 두개 모두로 구성되었으리라고 추측하기도 한다. 히브리어 단어들은 주로 세 개의 자음으로 구성되기 때문에, 스물 두 개의 우림과 둠뫼미들 중 어느 세 개가 조합되면, 위의 예들과 같이 단순히 ‘예’ 또는 ‘아니요’가 아닌, 구체적인 답변을 제시할 수도 있다.¹²⁾ 이 경우 우림과 둠뫼미는 일종의 메리즘(merism), 즉, 양극단의 두 단어를 사용하여 그 안에 포함된 모든 것들을 표현하는 방식으로 볼 수 있다. 예를 들어, ‘남녀’ 하면 남자 한 명과 여자 한 명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을 가리키는 것과 같은 표현 방식이다. 그러므로 우림과 둠뫼미는 히브리어 알파벳의 첫 자음이 알렙과 마지막 자음인 타우를 나타내는 것이면서 동시에 그 사이에 있는 모든 히브리어 자음들을 다 포괄적으로 말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우림과 둠뫼미는 두 개가 아니라 스물 두개로 구성되어 있었을 수도 있다는 말이다.

그러나 필자의 생각은 다르다. 우선 위에 언급된 성경 구절들에서 구체적으로 우림과 둠뫼미가 점술의 도구로 사용되었다는 언급이 나타나지 않는다. 비록 동사 **נִשְׁאָל**(샤알/묻다)이 사용되었다고 하더라도, 이 동사 자체만으로 우림과 둠뫼미의 사용을 전제할 수는 없다. 또한 위에서 본 사무엘상 14장 41절은 우림과 둠뫼미가 분명 ‘예’ 또는 ‘아니요’의 답을 주는 것임을 알려주고 있다. 그리고 우림과 둠뫼미가 기본적으로 ‘예’ 또는 ‘아니요’의 답변에 줄 수 없는 것일지라도 구체적인 답변을 얻어낼 방법이 있다. 예를 들어, 질문을 “우리 중에 누가 먼저 싸우러 올라가야 하겠습니까? 르우벤입니까?”하고 묻고, 답이 ‘아니요’로 나오면, 다시 “그러면 시므온입니까?”하고 다시 묻고, 답이 또 다시 ‘아니요’로 나오면, 또 다시 “그러면 유다입니까?”하고 묻고... 이런 식으로 답이 ‘예’가 나올 때까지 계속 질문

12) E. Robertson, “The Urim and Thummim: What Are They?”, *Vetus Testamentum* 14 (1964): 67-74.

을 바꾸어가며 반복하면 되는 것이다. 실제로 히타이트인들은 이러한 질문들을 반복하면서 ‘예’ 또는 ‘아니요’의 답만 줄 수 있는 점술 방식만으로도 자신들이 원하는 구체적인 답을 얻어낼 수가 있었다.¹³⁾

3) 정리 및 제안

우림과 둬땀은 제사장이 사용하던 점술 도구로, 꿈과 선지자와 함께 야훼 신앙에서 인정되던 공식적인 점술 방식의 하나였다. 어원에 대해서는 여러 견해들이 있지만, 필자는 우림을 ‘저주 받은, 유죄의’의 의미로, 그리고 둬땀을 ‘무죄의’의 의미로 받아들이고자 한다. 앞에서 설명한대로 사무엘상 14장 41절이 이를 뒷받침해 줄 수 있다. 또한 우림과 둬땀이 히브리어의 자음 숫자인 스물 두개로 구성되어 있었다는 주장은 위에 기술한 것처럼 그 근거를 쉽게 반박할 수 있으며, 성경의 용례들을 볼 때에 오히려 우림과 둬땀은 던져서 그 결과를 판단할 수 있는 두 개의 사물로 구성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2011년 10월 8일, 서울대학교에서 혼민정음학회 주최로 열린 Scripta 2011 학회에서 필자는 문자의 기원에 관한 세계적 권위자인 슈만트-베서라트(Denise Schmandt-Besserat)의 논문의 논찬을 맡게 되었다. 당시 서로 사담을 나누던 중에 슈만트-베서라트 교수는 필자에게 고대인들이 동물의 무릎 도가니뼈를 가지고 주사위나 공기처럼 던지기 놀이를 하곤 했었다는 이야기를 해 주었다. 본 논문의 범위를 벗어나지만, 슈만트-베서라트 교수의 조언을 바탕으로 우림과 둬땀이 이러한 동물의 무릎 도가니뼈 두 개로 구성되어 있었을 가능성을 고려해 볼 만하다. 무릎 도가니뼈는 한 쪽은 안쪽으로 빈 공간이 있고, 그 반대편은 그렇지 않다. 예를 들어, 우림과 둬땀의 점술이라는 것은, 동물의 무릎 도가니뼈 두 개를 던져서 둘 다 빈 공간이 있는 쪽이 나오면 우림, 그 반대의 경우에는 둬땀, 하나는 빈 공간이 있는 쪽, 다른 하나는 그 반대쪽이 나오면 무효의 답을 얻는 것이었을 수도 있다. 필자는 앞으로 고고학적 자료들을 바탕으로 이에 대한 연구를 더 진행해 보기를 희망하고 있다.

13) Richard H. Beal, "Divination and Prophecy: Anatolia," Sarah I. Johnston(ed.), *Religions of the Ancient World: A Guide* (Cambridge: Belknap Press of Harvard University Press, 2004), 381.

2. 에봇(Ephod)

성경에서 에봇은 대제사장이 입는 의복들 중의 하나로 나타난다. 대제사장은 일반 사제들이 입는 의복에 추가로 네 가지의 옷가지를 걸치게 되는데, 에봇이 그 중 하나이다. 여기에서는 에봇이 단순한 제사장의 의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묻는 점술을 위한 도구였을 가능성을 살펴보고자 한다.

1) 어원

에봇이라는 명칭의 어원에 대해서는 몇 가지 제안들이 있지만 아직 확실한 의견의 일치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에봇과 관련하여 가장 널리 알려진 어원은 아카드어 에파투(epattu)이다. 이 단어는 고 아시리아의 용어로 ‘값비싼 의복’의 하나로 알려져 있다.¹⁴⁾ 시리아어에서도 거룩한 의복을 의미하는 pedta가 이 단어와 같은 어원을 지녔다. 우가릿에서도 여신 아낫이 입는 옷들 중의 하나로 'ipd가 언급되고 있다.¹⁵⁾ 비 셈어 계열 어근에서 에봇의 어원을 찾으려는 시도도 있다. 이집트어 ifd는 거룩한 의복을 만드는 데 사용되는 천을 나타내는 단어였는데, 나중에 구체적으로 이러한 의복 자체를 의미하게 되었다.¹⁶⁾

2) 형태와 기능

출애굽기 28장과 39장은 에봇에 대하여 자세히 설명하고 있지만, 에봇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모양을 가지고 있었는지를 정확히 알기는 매우 어렵다. 아마도 에봇은 어깨 끈에 매달아 허리부터 아래로 걸쳐 입는 일종의 앞치마와 같은 형태를 하고 있었을 것이다. 에봇은 금으로 실을 만들어 청색, 자색, 홍색 실, 그리고 가늘게 꼰 베 실과 섞어 짜서 만든다. 또한 이스라엘 열 두 지파 중에서 여섯 지파의 이름을 호마노 보석 두 개에 각각 나누어 새기고, 이를 금 테에 물려서 에봇의 어깨 부분에 매어 달게 되어 있다.

금은 가장 귀한 재료였던 만큼 가장 거룩한 물건을 만드는데 사용되었다. 성

14) *The Assyrian Dictionary of the Oriental Institute of the University of Chicago*, E, "epattu", 183.

15) Gregorio del Olmo Lete and Joaquin Sanmartin, *A Dictionary of the Ugaritic Language in the Alphabetic Tradition* (trans. Wilfred G. E. Watson; Leiden: Brill, 2003), 89.

16) Ann Jeffers, *윳글*, 203.

막이나 신전의 지성소 안에 있는 물건들은 오직 순금으로만 만들어졌다는 사실로도 이를 알 수 있다. 지성소 안에는 청동이 사용될 수 없었다. 그와 반대로 성막의 뜰에 있는 물건들에는 금이 사용될 수 없었다. 이스라엘인들이 거룩한 것으로 여기던 색이 있었는데, 그 거룩한 순서대로 청색, 자색, 홍색이었다. 그런데 이 세 가지의 실을 섞어서 만든 천은 가장 거룩한 정도를 나타낼 수 있었다. 바로 이렇게 세 가지 색의 실을 엮어 만들어낸 천으로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는 휘장을 만들었고, 또한 성막을 해체하고 다른 곳으로 이동할 때 가장 거룩한 물건인 법궤를 덮는 용도로도 바로 이 천을 사용하였다.¹⁷⁾ 에봇이 이러한 재료로 정교하게 만들어졌다는 것은 분명 에봇이 최상위의 거룩함을 지니는 의복이었음을 알려 준다.

출애굽기에 나타나는 에봇은 분명 제사장이 입는 의복의 하나인 것처럼 보이지만, 그 외의 다른 곳에서는 에봇이 일종의 신상이나 형상처럼 묘사된다. 예를 들어, 사사기 8장 27절의 기록에 의하면, 기드온은 금으로 에봇을 만들어서 자신의 성읍에 두었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에봇을 음란하게 섬겼다. 그리고 사무엘상 21장 9절도 에봇이 의복 이상의 것임을 암시한다. 또한 몇몇 구절들에서 에봇이 드라빔과 함께 언급된다는 사실도 과연 에봇이 단순히 의복의 한 종류일 뿐이었던지 의구심을 가지게 한다.

한편 마이어스(C. Meyers)는 에봇이 메소포타미아의 의식에서 신상에 입히던 금으로 된 의상과 유사한 기능을 했던 것으로 추정한다.¹⁸⁾ 이러한 의상은 신이 제의가 진행되는 동안 그 가운데 현존한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기능을 한다. 이사야 30장 22절을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도 신의 형상을 본뜬 우상들을 만들고는 그 위에 금과 은으로 옷을 만들어 입히곤 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성경의 일부 구절들에서 에봇이 종종 드라빔이나 우상과 같이 언급되는 것은 바로 에봇이 이러한 신상들을 입히는 데 사용되었을 가능성을 보여준다고 볼 수도 있다는 것이다. 야훼 하나님의 경우 신상으로 나타내는 것이 공식적으로 금지되었고, 고고학적으로나 문헌적으로도 실제 야훼 하나님의 신상이 있었다는 증거가 전혀

17) 성막의 각 영역에 따른 거룩함의 차이가 어떠한 방식으로 표출되었는지에 대하여는 Philip P. Jenson, *Graded Holiness: A Key to the Priestly Conception of the World* (JSOT 106; Sheffield: Sheffield Academic Press, 1992), 910이하를 보라.

18) Carol Meyers, "Ephod," *Anchor Bible Dictionary* 2: 550.

발견되고 있지 않다. 그러므로 야훼의 신상이 없는 상태에서 대신 대제사장이 에봇을 입고 제의를 진행할 때, 그가 야훼 하나님과 접촉할 수 있도록 하고, 또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기능을 했던 의복이 바로 에봇이었다는 주장이다. 에봇의 성격에 대한 이 모든 다양한 주장들에도 불구하고 에봇의 주요 기능은 짐승이었다고 볼 충분한 근거들이 있다. 우선 사무엘상 23장 9-12절과 30장 7-8절을 보자.

다윗은 사울이 자기를 해하려 하는 음모를 알고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에봇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고 다윗이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사울이 나 때문에 이 성읍을 멸하려고 그일라로 내려오기를 꾀한다 함을 주의 종이 분명히 들었나이다 그일라 사람들이 나를 그의 손에 넘기겠나니까 주의 종이 들은 대로 사울이 내려 오겠나니까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주의 종에게 일러 주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가 내려오리라 하신지라 다윗이 이르되 그일라 사람들이 나와 내 사람들을 사울의 손에 넘기겠나니까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들이 너를 넘기리라 하신지라(삼상 23:9-12)

다윗이 아히멜렉의 아들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에봇을 내게로 가져오라 아비아달이 에봇을 다윗에게로 가져가매 다윗이 여호와께 문자와 이르되 내가 이 군대를 추격하면 따라잡겠나니까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되 그를 쫓아가라 내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삼상 30:7-8)

이 두 구절들에서 우리는 에봇과 관련하여 몇 가지 중요한 사실들을 발견할 수 있다. 우선 에봇은 예상했던 바대로 대제사장이 가지고 다녔던 물건이었다. 왕이라고 하더라도 에봇을 자기 마음대로 수중에 둘 수는 없었다. 그리고 여기에서 분명히 드러나는 에봇의 기능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기 위한 것이다. 또한 에봇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물을 때에는 ‘예’ 또는 ‘아니요’의 대답을 얻을 수 있는 형식의 질문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에 일부 학자들은 에봇을 일종의 제비뽑기용 제비뽑기거나, 아니면 그러한 제비뽑기를 담아두는 상자 같은 것으로 보기도 한다.¹⁹⁾ 그러나 ‘예’ 또는 ‘아니요’ 형식의 답이 꼭 제비뽑기로만 주어질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고대 이집트에서는 국가의 중요한 종교 축제일 때 신전 안에 안치된 신상들을 배의 모양을 한 가마에 태우고 이집트의 주요 신전들을 순회하는 행렬이 있었다. 일반인들은 이 때에 신상 앞에 나아가 신에게 질문을 할 수 있었다. 질문에 대한 답은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주어졌다. 신상을 태운 배를 메고 있는 사제들이 신상을 앞으로 기울이면 ‘예’ 이고, 뒤로 기울이면 ‘아니요’ 였다.²⁰⁾ 에봇을 통한 점술의 경우, 이러한 예에 비추어 보면, 에봇을 입은 신상을 제사장이 움직이도록 함으로써 ‘예’ 또는 ‘아니요’의 응답을 질문자에게 줄 수도 있었을 것이다.

3) 정리 및 제안

필자는 구약 성경에 나타나는 에봇과 관련된 상충되는 증거들을 설명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에봇의 역사를 재구성해 보고자 한다. 이스라엘 역사 초기에는 에봇은 신의 형상에게 입히던 의상의 일종이었던 것 같다. 특히 사사기 17장 5절; 18장 14절, 호세아 3장 4절 등에서 에봇이 드라빔과 함께 언급되고 있다는 사실로 미루어 보아 에봇이 드라빔을 입히는 데 사용되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그러나 이스라엘에서 신의 형상을 만드는 것을 금하고, 특히 야훼 하나님을 어떠한 형상으로도 나타내는 것을 금지하는 반형상주의가 확산되면서, 본래 신의 형상에 입히던 에봇을 대제사장이 대신 입게 되었을 것이다.

그러나 에봇이 지닌 본래의 역할인 점술의 기능은 지속되었다. 다윗이 에봇을 하나님의 뜻을 묻는데 사용했던 것을 보면, 에봇을 통한 점술은 상당기간 정당한 방식의 점술로 인정되었던 것 같다. 그러나 신상과 연관된 에봇의 역사적 기원과, 점술이 가진 민간신앙적 요소 때문에, 정통 야훼주의 신학자들은 에봇을 점술의 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문제 삼았을 것이다. 에봇에 대한 그들의 이러한 좋지 않은 인식이 사사기 8장 27절 같은 곳에 반영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결국 출애굽기 28장, 39장과 같은 제사장계 문헌에서는 에봇의 점술의 기능에 대한 언급은 완전히 사라지고, 에봇은 오직 대제사장의 의복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닌 것으로 묘사되고 있는 것이다.

19) Ann Jeffers, *웃글*, 207.

20) John Baines, "Society, Morality, and Religious Practice", Byron E. Shafer(ed.), *Religion in Ancient Egypt: Gods, Myths, and Personal Practice* (Ithaca: Cornell University Press, 1991), 171.

3. 언약궤

언약궤는 이스라엘 종교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세상에서 가장 거룩한 물건이다. 출애굽기 25장과 37장에 의하면, 언약궤는 아카시아 나무에 순금을 입혀 만들었다. 길이는 두 규빗 반, 너비는 한 규빗 반, 높이가 한 규빗 반의 크기이다. 언약궤에는 금으로 네 개의 고리들을 달고, 여기에 제사장들이 막대를 넣어서 이동할 때에 들고 다닐 수 있도록 했다. 개역개정판 성경 출애굽기 25장 17절에는 순금으로 ‘속죄소’를 만들라고 하고 있다. 새번역 성경에는 ‘속죄판’으로 되어 있다. 이 단어는 히브리어 כַּפֹּרֶת(카포레트/속죄소?)를 옮긴 것인데, 대부분의 영어 성경들도 마찬가지로 ‘mercy-seat’으로 번역하고 있다. 이러한 번역들은 히브리어 כַּפֹּרֶת(카포레트/속죄소?)를 “용서하다, 사면하다”라는 뜻의 히브리어 동사 כָּפַר(키페르/용서하다)에서 온 것으로 착각한 결과인 듯하다. 그러나 사실 이 단어는 아랍어 카파라(kafara)와 기원이 같은 말로, “덮다”를 의미하는 동사에서 온 것일 가능성이 높다. 그러므로 개역개정판에서 ‘속죄소’로 옮긴 말은 사실은 그냥 언약궤의 ‘덮개’를 말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²¹⁾

출애굽기 25장 16절에 의하면, 이 언약궤 안에는 하나님이 주신 증거판을 넣어 두었다. 그런데 신약성경 히브리서 9장 4절에는 언약궤 안에 만나를 담은 향아리와 아론의 지팡이도 함께 들어있었다고 기록되어 있다. 이를 구약의 기록들과 비교해 보자. 우선 출애굽기 16장 33절에는 만나를 담은 향아리를 보관했다고 나오는데, 구체적으로 언약궤 안에 보관했다고는 되어있지 않다. 그리고 언약궤는 출애굽기 25장에 가서야 만들기 시작하므로 만나를 담은 향아리가 언약궤 안에 안치되었다고 볼 수 있는 근거는 더욱 없다. 또한 민수기 17장 10절을 자세히 읽어 보면, 아론의 지팡이를 언약궤 앞에 두라고 했지, 그 안에 두었던 것은 아님을 알 수 있다. 이 문제를 열왕기상 8장 9절은 분명하게 밝히고 있다.

이 모든 성경의 증언들을 종합해 보면, 아마도 히브리서 9장 4절의 내용은 구약의 기록들을 잘못 해석한 결과인 듯하다. 언약궤 안에는 오직 증거판 만이 보관되어 있었던 것이다. 이렇게 조약의 내용을 담은 문서를 보관해 두는 것은 당

21) Nahum M. Sarna, *Exodus: The JPS Torah Commentary* (Philadelphia: The Jewish Publication Society, 1991), 161.

시 고대 근동의 조약 체결에서 널리 행해지던 풍습이었다. 특히 히타이트 왕들이 히타이트 제국의 속주들과 맺은 조약 문서들에는 조약의 내용을 기록한 서판을 신전에 보관하도록 하는 규정이 나와 있다.

1) 언약궤의 기능

언약궤는 야훼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했다. 언약궤가 있는 곳에 하나님이 있고, 하나님이 계신 곳에 언약궤가 있었다. 사무엘상 4장 6-7절은 이스라엘이 블레셋과 전쟁을 할 때의 이야기인데, 언약궤가 이스라엘 진영에 들어오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두려워하기 시작했다. 이 기록은 블레셋 사람들은 궤가 진영에 들어온 것을 곧 이스라엘의 신이 진영에 들어온 것과 마찬가지로 인식했다는 사실을 알려 주고 있다. 그래서 여러 학자들은 이스라엘에서 언약궤는 메소포타미아의 신상과 유사한 기능을 했었다고 지적하기도 한다.²²⁾

이렇게 언약궤의 존재가 곧 야훼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낸다는 사실에 착안하여, 언약궤는 단순한 상자 이상의 것이라는 주장들이 제기되었다. 예를 들어, 이집트에서는 중요한 종교적 축제 때가 되면, 평소에는 신전 안에 안치되어 있는 신들을 만날 기회가 없던 일반인들이 신들의 형상을 접할 수 있도록 제사장들이 신상들을 한 신전에서 다른 신전으로 옮겨 다니는 행진을 하곤 했다. 이렇게 신상들을 이동할 경우 일반적으로 신성한 배의 모습을 한 운반도구에 신상을 올려 놓고 행진을 하였다. 이미 20세기 초부터 언약궤가 이와 유사한 물건이었을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되었다.²³⁾

물론 언약궤가 이스라엘 역사 초기에는 그러한 역할을 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지만, 적어도 성전이 세워지고 지성소 안에 언약궤가 안치된 이후에는 다른 기능을 가지게 된 것 같다. 성경에 의하면 솔로몬 성전의 지성소 안에는 거대한 크기의 그룹들이 날개를 펴고 하나님의 보좌의 모양을 형성하고 있었다. 과연 이 지성소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놓여져 있었을까? 이 문제에 대하여는 학자들의 입장이 첨예하게 갈려 있다. 지면 관계상 자세한 논의는 할 수 없으나, 필자는 여

22) P. D. Miller and J. J. M. Roberts, *The Hand of the Lord: Reassessment of the Ark Narrative of 1 Samuel* (Baltimore: The Johns Hopkins University Press, 1977).

23) H. Gressmann, *Die Lade Jahves und das allerheiligste des salomonische Tempels* (Leipzig: 1926). 언약궤에 대한 더 깊은 논의를 위해서는 이경숙, “솔로몬 성전과 법궤”, 『구약논단』 18집 (2005년 8월), 30-52를 보라.

러 가지 고고학적, 문학적 증거들을 놓고 생각할 때 야훼 하나님에 대한 신앙은 처음부터 무형상주의에 바탕을 두었을 것으로 추정한다.²⁴⁾

신상의 존재 유무와 크게 관계없이 성전의 지성소 안에서 야훼 하나님은 눈에 보이든지, 아니면 보이지 않든지 간에 거대한 두 마리의 순금 그룹으로 만들어진 보좌에 앉았었다고 여겨졌다. 그런데 하나님이 좌정하신 이 장면에서 언약궤는 무슨 기능을 하였던 것일까? 구약 성경에 나타나는 몇몇 특이한 증언들과 고고학적 자료를 참고로 해 보면, 솔로몬 성전에 안치된 언약궤는 지성소 안에 보이지 않게 임재 해 계신 야훼 하나님의 발판으로 여겨졌을 가능성이 높다. 주전 11세기 페니키아의 도시 비블로스의 왕 아히람의 석관에 새겨진 장면은 언약궤가 하나님의 발판의 기능을 했음을 암시해주는 고고학 자료이다. 이 석관에 있는 장면에는 신 또는 아히람 왕이 보좌에 앉아있고, 그 옆에는 몸은 사자요, 얼굴은 사람이며, 독수리의 날개를 가진 그룹이 있다. 부조 상으로는 그룹이 한 마리만 묘사되어 있지만, 물론 보좌의 반대쪽에도 분명 또 한 마리의 그룹이 있었을 것이다. 그런데 아히람의 발 아래에는 상자 하나가 놓여져 있다. 아마도 이와 유사하게 솔로몬 성전의 지성소에서도 그룹 보좌 아래에 법궤가 놓여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 법궤는 하나님의 발등상의 역할을 했던 것으로 생각된다. 이 사실은 성경 구절을 통해서도 알 수 있는데, 예를 들어, 역대기상 28장 2절에도 “여호와와 언약궤 곧 우리 하나님의 발판”이라고 언급되어 있고, 시편 99편 5절에도 하나님의 보좌에는 발등상이 있었음을 알려주고 있다. 그런데 언약궤가 솔로몬 성전에 안치되기 이전 시대의 언약궤에 대한 전승들을 살펴보면 언약궤의 용도 하나가 두드러지게 드러난다. 바로 전쟁과 관련하여 신탁을 전하는 기능이다. 먼저 사사기 20장 26-28절을 보자.

이에 온 이스라엘 자손 모든 백성이 올라가 벰엘에 이르러 울며 거기서 여호와 앞에 앉아서 그 날이 저물도록 금식하고 번제와 화목제를 여호와 앞에 드리고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물으니라 그 때에는 하나님의 언약궤가 거기 있고 아론의 손자인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그 앞에 모시고 섰더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쭙기를 우리

24) 이에 대하여는 필자의 논문 “솔로몬 성전, 이스라엘의 거룩한 공간”, 『구약논단』34집 (2009년 12월), 130-131을 보라.

가 다시 나아가 내 형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이까 말리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
되 올라가라 내일은 내가 그를 네 손에 넘겨 주리라 하시는지라

본문은 이스라엘과 베냐민 자손 사이에 있었던 전쟁을 기록하고 있다. 이스라
엘 자손들이 베냐민 자손들에게 연이어 패하게 되자 그들은 하나님께 금식으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고 과연 자신들이 베냐민 자손들과 싸움을 계속해야 하는
지의 여부를 물어보기로 한다. 역시 질문은 ‘예’ 또는 ‘아니요’의 답을 받을 수
있는 형식으로 제시된다. 그리고 이번에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승리를 안겨주
겠다는 하나님의 응답이 주어진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물을 때 어떠한 점술
방식을 사용했는지 구체적인 기록이 없는 가운데 언약궤에 대한 언급이 나타나
는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본문을 기록, 또는 편집한 사람은 사사 시대보다 훨씬
후대에 이 이야기를 서술하고 있음이 분명하다. 이는 “그 때에는...”으로 시작
되는 문장으로 알 수 있다. 그는 왜 하필 “그 때에는 하나님의 언약궤가 거기 있
었다”는 부연 설명을 삽입해야만 했을까? 하나님의 신탁을 받는 매개체가 무엇
이었는지를 밝히기 위함이었을 것이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하면, 본문은 언약궤
가 전쟁의 승패와 관련된 신탁을 받는 용도로 사용되었음을 알려주는 증거라고
볼 수 있다.

언약궤의 점술적 기능은 사무엘하 15장 24-26절에도 암시되어 있다. 이 구절
에서 다윗은 현재 압살롬을 피하여 도망하고 있는 중이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신
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성읍으로 다시 돌아가게 하실지, 아니면 그렇게 하지 않으
실지 궁금해 한다. 본문의 내용만으로는 다윗이 언약궤를 가지고 이 물음에 대한
응답을 받기 위한 점술을 곧바로 행하였는지의 여부는 알 수 없다. 그럼에도 언
약궤와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한 시도가 긴밀하게 결합되어 나타난다는 사실은
주목할 만하다.

언약궤의 기능과 관련해서 또 하나 참고할 내용이 있다. 사무엘상 6장 7-9절이
다.

그러므로 새 수레를 하나 만들고 멩예를 메어 보지 아니한 것 나는 소 두 마리를 끌
어다가 소에 수레를 메우고 그 송아지들은 떼어 집으로 돌려보내고 여호와와 궤를 가
져다가 수레에 싣고 속건제로 드릴 금으로 만든 물건들은 상자에 담아 궤 곁에 두고

그것을 보내어 가게 하고 보고 있다가 만일 궤가 그 본 지역 길로 올라가서 벤세메스로 가면 이 큰 재앙은 그가 우리에게 내린 것이요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를 친 것이 그의 손이 아니요 우연히 당한 것인 줄 알리라 하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과의 전쟁 중에서 언약궤를 빼앗겼는데, 이 언약궤로 인해 블레셋 사람들에게 재앙이 일어나자 블레셋 사람들은 언약궤를 다시 돌려보내기로 한다. 소달구지에 실린 언약궤가 이스라엘 진영으로 가는 도중에 갈림길이 나타난다. 여기에서 언약궤가 어느 쪽 길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블레셋에 내린 재앙이 신의 뜻인지 아닌지의 여부가 갈린다. 언약궤를 아랍 베두인들의 이동식 신전인 쿠바(qubbah)와 비교하는 연구가 진행되기도 했었는데, 이에 의하면 갈림길에 마주쳤을 때 어느 길을 선택할 것인지를 정하는 것이 바로 이 쿠바의 주요 기능 중의 하나였다고 한다.²⁵⁾ 여하튼 사무엘상 6장의 이야기도 언약궤가 양자택일의 문제에서 답변을 제공해주는 역할을 했었음을 보여준다.

마지막으로 살펴볼 구절은 사무엘상 14장 18절이다. 사울이 블레셋과 전쟁을 할 때, 그의 아들 요나단과 그의 무기를 든 자가 적진에 들어간 상황에서 사울은 제사장 아히야에게 하나님의 궤를 가져오라고 명한다. 그러나 블레셋 진영에 소동이 점차 거세지자 그 명령을 취소한다. 칠십인역에는 특이하게도 ‘하나님의 궤’ 대신에 ‘에봇’이 언급되어 있다. 대부분의 학자들이 칠십인역을 따르는데 반해, 정중호는 어려운 읽기를 우선시하는(lectio difficilior) 본문비평 원칙을 따라 마소라 본문의 기록이 옳다고 주장한다.²⁶⁾ 필자도 이에 동의한다. 그런데 사울은 왜 전쟁 중에 급히 하나님의 궤를 가져오라고 했을까? 아마도 그는 자기 아들 요나단이 적진에 들어간 상황에서 전세가 어떻게 돌아갈지를 하나님께 물어보고자 했었을 것이다. 그러나 블레셋 진영에 혼란이 가중되고, 전세가 유리하게 전개되자, 하나님의 궤를 굳이 가져오지 않아도 된다고 판단하고 궤를 가져오라는 명령을 취소했던 것이다. 이는 하나님의 궤의 주요 기능이 전쟁의 향방을 점치는 것이었음을 암시한다고 볼 수 있다.

25) Ann Jeffers, *윳글*, 201.

26) 정중호, “하나님의 궤는 유일한가?”, 『구약논단』40집 (2011년 6월), 109. 이 논문에서 정중호는 구약 성경 안에 다양한 궤에 관한 전승들이 산재해 있음을 보여준다.

2) 정리 및 제안

언약궤에 대한 구약 성경 내의 각 자료층들의 기록들을 분류하여 보면 특히 신명기의 기록에서 특이한 현상이 발견된다. 신명기에서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지도 않고, 사람을 그 자리에서 즉사시킬 만큼 강력한 힘이 있는 물건도 아니고, 전쟁과 관련하여 사용되지도 않고, 신탁을 받기 위한 용도로 나타나지도 않는다. 언약궤는 단지 증거판을 담아 두는 나무로 만든 상자,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²⁷⁾

언약궤의 점술적 기능을 암시하는 초기 언약궤 전승들보다 후대의 것인 제사장계 문서에서도 언약궤는 단지 증거판을 보관해 두는 상자로 묘사될 뿐이다. 제사장계 문서는 체계화되고, 정형화된 제의에 관심을 두고 있으므로 이러한 경향은 어쩌면 지극히 당연한 현상이다. 그러나 신명기의 언약궤에 대한 시각은 설명이 필요하다. 필자의 생각으로는 아마도 신명기의 저자는 언약궤가 점술을 위한 용도로 사용되는 것에 대하여 부정적인 견해를 가지고 있었던 듯하다. 그래서 의도적으로 언약궤를 비신전화시켜 단순한 나무 상자로 전락시킨 것 같다. 그렇지만 그는 신명기계 역사서에 나타나는 언약궤에 관한 오래된 전승들만큼은 이미 뿌리 깊게 자리 잡고 있었기 때문에 건드리지 못했을 것이다. 이러한 관찰들은 신전에 안치되기 이전 언약궤의 초기 전승들이 상당히 신뢰할 만하며, 따라서 언약궤가 본래 가졌던 주요 기능들 중 하나도 역시 하나님의 신탁을 받는 것, 특별히 전쟁의 승패 여부를 점치는 것과 깊은 관련이 있었다는 사실을 보여 준다고 하겠다.

4. 종합 및 결론

앞에서 살펴본 증거들은 적어도 이스라엘 역사 초기에는 에봇과 언약궤도 우림과 둠뭉처럼 하나님의 뜻을 묻는 제사장의 점술 도구로서의 기능을 가지고 있었음을 보여주었다. 그런데 신명기와 제사장계 문헌에서는 에봇과 언약궤의 점술적 기능에 대한 언급이 나타나지 않는다. 본문에서 필자는 에봇은 본래 신의 의사표시를 전할 때 신의 형상에 입히던 것이었으나, 야훼 하나님의 신상을 거부

27) C. L. Seow, "Ark of the Covenant", *Anchor Bible Dictionary* 1:391-392.

하는 반형상주의적 경향 때문에 야훼 신앙 내에서는 점차로 그 본래 기능을 상실하고, 단순히 제사장의 의복으로서의 기능만 유지하게 되었을 가능성을 제시하였다. 한편 언약궤는 점술에 대하여 부정적 견해를 가지고 있던 신명기 저자에 의해 단순히 증거판을 담아 두는 나무 상자로 전락하고 말았다.

그러나 무슨 이유에서인지는 알 수 없지만, 우림과 둠뭇에 대한 의도적이고 분명한 신학적, 문학적인 견제는 구약 성경 어디에도 나타나지 않는다. 그 이유로 필자가 하나 생각해 볼 수 있는 상황은 우림과 둠뭇이 포로기에 가까운 시대 이후에는 점술을 위해 실제로 사용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²⁸⁾ 그러므로 신명기 기자나 제사장계 문서의 저자들도 굳이 우림과 둠뭇의 유명무실해진 기능에 경계심을 나타낼 필요가 없었을지도 모른다.

제사장들이 이 세 가지 점술 도구들을 어떠한 상황에서, 어떻게 사용하였는지는 구체적으로 알기가 매우 어렵다. 필자가 추정하기로는 죄의 유무를 가리는데 사용되는 주된 방식은 우림과 둠뭇을 통한 점술이었던 것 같다. 사무엘상 14장 41절에서 사울이 자신과 요나단에게 잘못이 있는지 아닌지를 가려낼 때 우림과 둠뭇을 사용했던 것이 이를 뒷받침해주는 증거이다. 언약궤의 경우 비록 후기의 구약 문헌들에서는 점술적 기능이 거의 나타나지 않지만, 초기 전승의 증거들은 언약궤가 이스라엘 역사 초기에 전형적으로 전쟁의 승패를 묻는 점술에 사용되었음을 보여준다. 마지막으로 에봇이 어떠한 경우에 사용되었는지는 일반화시키기 어렵다. 앞서 살펴본 사무엘상 23장 9-12절과 30장 7-8절의 기록에 의하면, 다윗은 그일라 사람들이 자신을 사울에게 넘길지를 물어볼 때와, 자신이 아말렉 사람들을 추격해서 잡을 가능성이 있는지를 물어볼 때 에봇을 사용하였다. 에봇은 '예' 또는 '아니요'의 답을 얻을 수 있는 일반적인 질문들에 사용되었을 가능성이 있어 보이지만, 현재 남아있는 자료들로 그 이상의 것을 추측하는 것은 무리인 듯하다.

오늘날 기독교에는 기록된 경전이 존재하는 덕분에 고대 이스라엘 사람들과 같은 다양한 점술들을 행하는 사람들은 흔치 않으나, 여전히 일부 교인들은 꿈이나 예언 같은 것을 통해 하나님의 계시를 받는다고 주장하기도 하고, 또한 성경

28) 우림과 둠뭇이 어느 시대부터 사용되지 않았는지에 대해서는 다양한 견해들이 있으나, 적어도 포로기 이후에는 우림과 둠뭇이 점술을 위하여 사용되지는 않았던 것 같다. 이에 대한 논의는 Cornelis Van Dam, *위 글*, 236-255를 보라.

을 읽을 때도 그 내용의 신학적 의미를 이해하려고 노력하기 보다는, 자신이 궁금한 일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을 듣는 수단으로 성경을 이용하는 경우들이 많다. 이러한 상황을 고려하면, 오늘날 한국 기독교인들의 신앙과 현실 속에서 기독교가 용인할 수 있는, 하나님의 뜻을 묻고 그에 대한 응답을 들을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은 어떠한 것이 있을지 진지하게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또한 각종 무속적인 점술 행위들이 기독교의 이름으로 행하여지고 있지는 않은지 성경을 바탕으로 점검해 보아야 할 것이다. 본 논문이 이러한 작업에 조금이나마 이론적 기초를 제공하는데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

5. 참고문헌

- 강승일, “솔로몬 성전, 이스라엘의 거룩한 공간”, 『구약논단』34집 (2009년 12월), 126-143.
- 이경숙, “솔로몬 성전과 법궤”, 『구약논단』18집 (2005년 8월), 30-52.
- 정중호, “‘하나님의 궤’는 유일한가?”, 『구약논단』40집 (2011년 6월), 105-122.
- Baines, John, “Society, Morality, and Religious Practice,” Byron E. Shafer(ed.), *Religion in Ancient Egypt: Gods, Myths, and Personal Practice* (Ithaca: Cornell University Press, 1991), 123-198.
- Beal, Richard H., “Divination and Prophecy: Anatolia”, Sarah I. Johnston(ed.), *Religions of the Ancient World: A Guide* (Cambridge: Belknap Press of Harvard University Press, 2004), 381-382.
- Cryer, Frederick H., *Divination in Ancient Israel and Its Near Eastern Environment* (JSOTSup 142; Sheffield: JSOT Press, 1994).
- Dam, Cornelis van., *The Urim and Thummim: A Means of Revelation in Ancient Israel* (Winona Lake: Eisenbrauns, 1997).
- Döller, J., *Die Wahrsagerei im Alten Testament* (Münster: Aschendorff, 1923).
- Gressmann, H., *Die Lade Jahves und das allerheiligste des salomonische Tempels* (Leipzig: 1926).
- Jeffers, Ann, *Magic and Divination in Ancient Palestine and Syria* (Leiden: Brill, 1996).

- Jenson, Philip P., *Graded Holiness: A Key to the Priestly Conception of the World* (JSOT 106; Sheffield: Sheffield Academic Press, 1992).
- Kitz, Anne M., “The Plural Form of 'Urim and Tummim'”, *Journal of Biblical Literature* 116 (1997), 401–410.
- Lete, Gregorio del Olmo and Joaquin Sanmartin, *A Dictionary of the Ugaritic Language in the Alphabetic Tradition* (trans. Wilfred G. E. Watson; Leiden: Brill, 2003).
- McCarter, P. Kyle, *1 Samuel: A New Translation with Introduction and Commentary* (AB 8; Garden City: Doubleday, 1980).
- Mendelsohn, I., “Urim and Thummim”, *The Interpreter's Dictionary of the Bible* 4: 734–740.
- Meyers, Carol, “Ephod”, *Anchor Bible Dictionary* 2: 550.
- Milgrom, Jacob, *Numbers: The JPS Torah Commentary* (Philadelphia: The Jewish Publication Society, 1990).
- Miller, P. D. and J. J. M. Roberts, *The Hand of the Lord: Reassessment of the Ark Narrative of 1 Samuel* (Baltimore: The Johns Hopkins University Press, 1977).
- Robertson, E., “The Urim and Thummim: What Are They?”, *Vetus Testamentum* 14 (1964): 67–74.
- Sarna, Nahum M., *Exodus: The JPS Torah Commentary* (Philadelphia: The Jewish Publication Society, 1991).
- Seow, C. L., “Ark of the Covenant”, *Anchor Bible Dictionary* 1:386–393.
- Wellhausen, J., *Die Composition des Hexateuchs* (3rd ed; Berlin: G. Reimer, 1899).

검색어

우림과 둠뭉

에봇

언약궤

점술

반 형상주의

The Urim and Thummim, the Ephod, and the Ark of the Covenant: Tools for Priestly Divination

Seung Il Kang, Ph.D.

Assistant Professor, College of General Education
Hannam University

The Urim and Thummim were sanctioned as the official means of divination in ancient Israel. Whereas many studies have delved into the meaning and nature of the Urim and Thummim, there is a significant lack of studies on the possibility that other tools of the priests were used in divination.

This essay argues that the Ephod and the Ark of the Covenant along with Urim and Thummim once functioned as tools for priestly divination in the early history of ancient Israel. It is worth noting that Deuteronomy and the Priestly source remain silent on the divinatory function of the Ephod and the Ark. It is suggested that the Ephod was originally a garment for the cult images of the divine used in divination,

www.kci.go.kr

but later reduced as one of the priestly garments due to the aniconic tendency of normative Yahwism. In a similar fashion, the Ark of the Covenant became simply an wooden receptacle in which the tablets of the covenant were kept.

We do not know for sure how these divinatory tools were used. It appears that the Urim and Thummim were used to determine one's culpability. As for the use of the Ark in divination, the earlier strata clearly show that the Ark was once a war oracle. It is more difficult to articulate the way the Ephod played a role in divination. Chances are that the divination through the Ephod was employed in some general questions that can be answered 'yes' or 'no.'

Keywords

Urim and Thummim

Ephod

The Ark of the Covenant

Divination

Aniconism

- 투고일: 2012년 3월 1일
- 심사일: 2012년 5월 10일
- 게재 확정일: 2012년 5월 14일

www.kci.go.kr